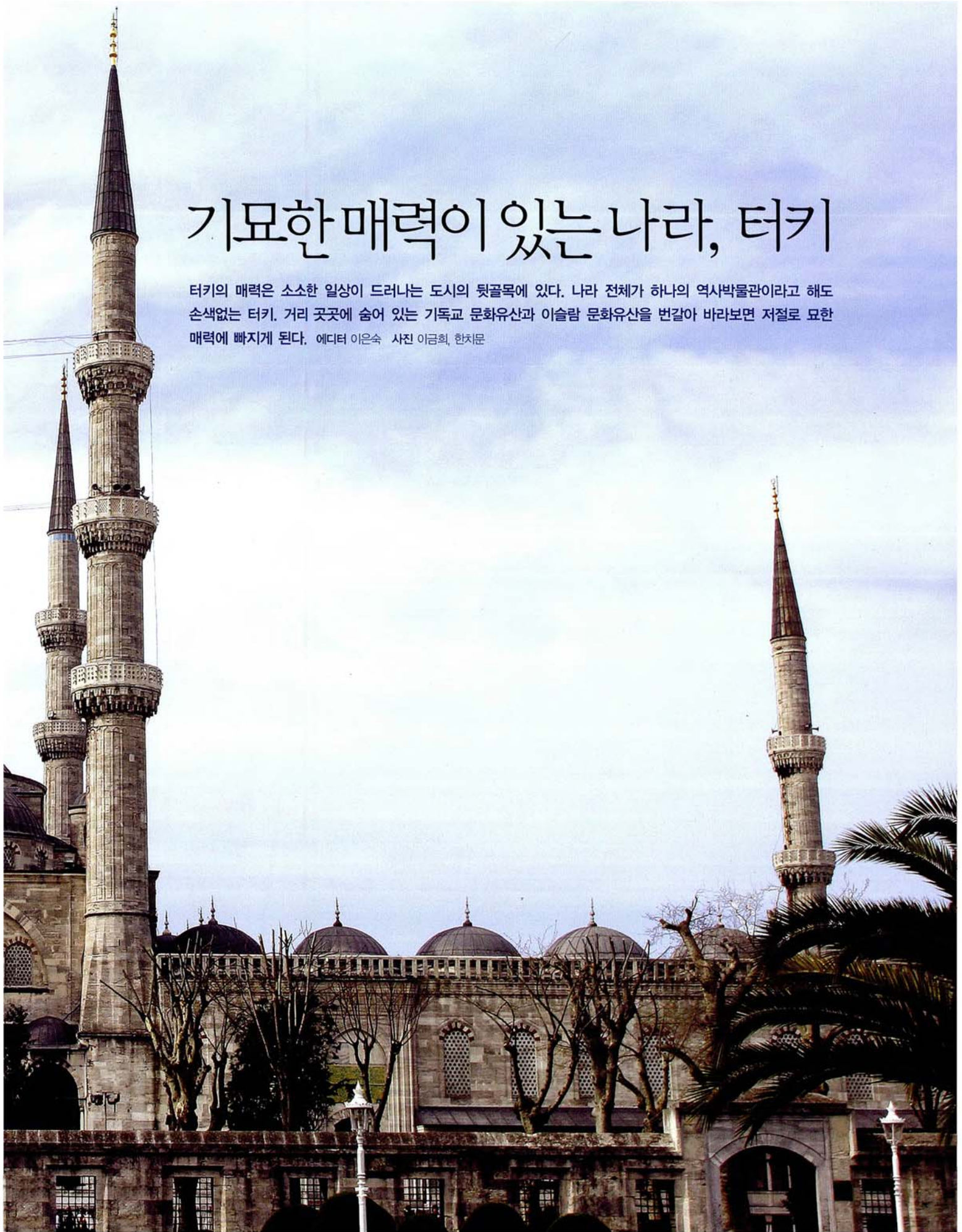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이슬람 사원 블루 모스크(Blue Mosque). 정식 명칭은 '아메트 1세의 모스크'. 블루 모스크는 모스크 내벽을 장식한 타일이 푸른색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묘한 매력이 있는 나라, 터키

터키의 매력은 소소한 일상이 드러나는 도시의 뒷골목에 있다. 나라 전체가 하나의 역사박물관이라고 해도 손색없는 터키. 거리 곳곳에 숨어 있는 기독교 문화유산과 이슬람 문화유산을 번갈아 바라보면 저절로 묘한 매력에 빠지게 된다. 에디터 이은숙 사진 이금희, 한치문



이스탄불에서 국내선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지중해 해안 도시, 안탈리아. 이곳에는 최고급 호텔과 리조트 등 여행자들을 위한 고급 편의시설들이 즐비하다. 한 해 이곳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3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터키 최대의 관광 도시로 꼽히는 안탈리아는 바다와 태양, 역사와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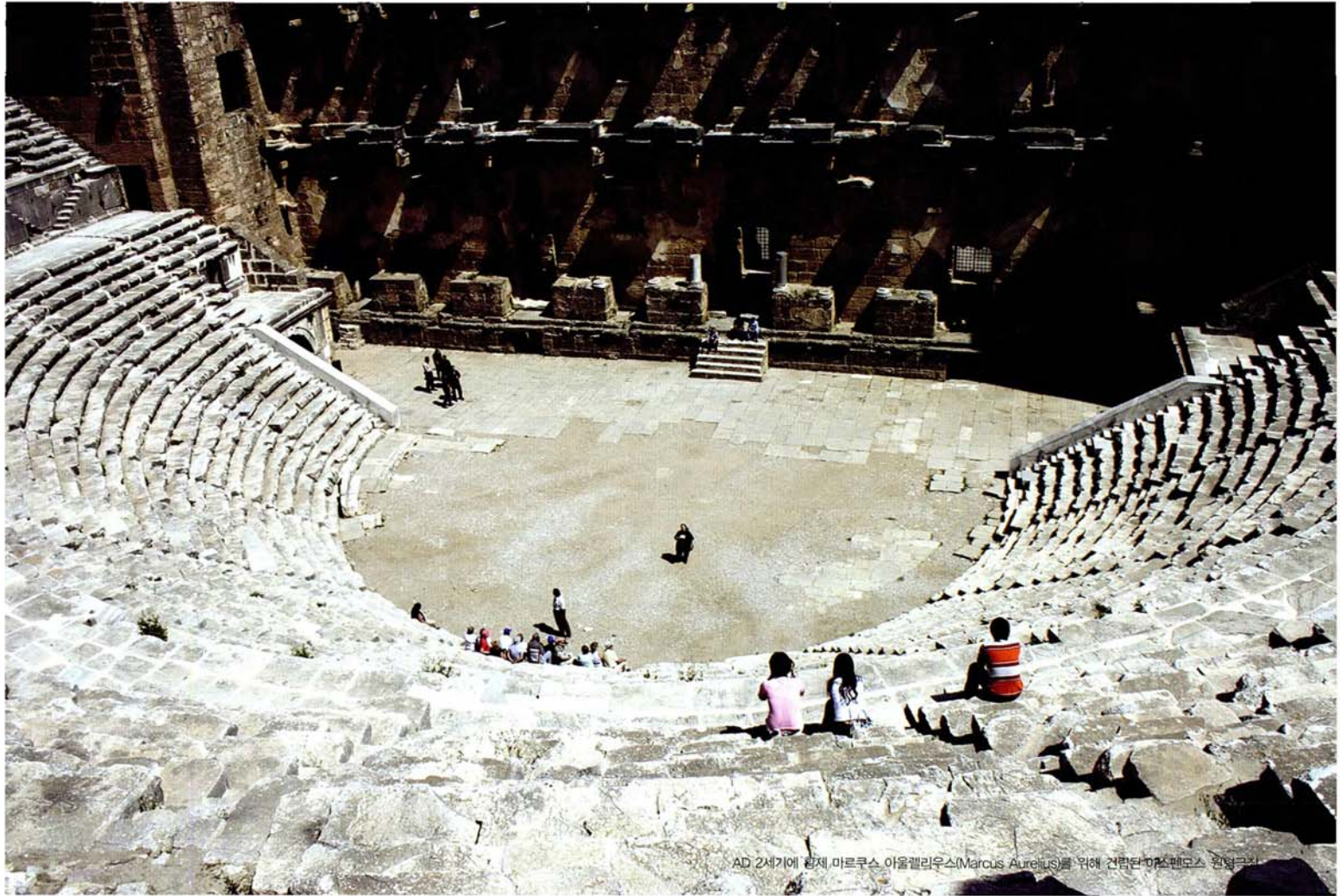
Antalya

터키 여행의 시작, 안탈리아 터키 남부에 위치한 안탈리아(Antalya)는 터키 최대의 휴양 도시이며 안탈리아 주의 주도(州都)다. 도시 앞에는 지중해가 흐르고 뒤로는 토로스 산맥이 펼쳐져 있는 이곳은 1년 내내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안탈리아라는 이름은 당시 팜필리아 해안에 도시를 세운 페르가멘의 왕 아탈로스(Attalos) 2세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 '모든 종족의 땅'이란 의미의 팜필리아 지역에 걸쳐 있는 안탈리아는 그 이름처럼 끊임없이 많은 민족이 거쳐간 도시다. 2000년 가까이 이 땅에서 문화를 꽃피운 고대인들의 자취가 남아 있는 안탈리아는 색다른 감흥을 전해준다.

안탈리아의 구시가, 칼레이치 안탈리아의 구시가는 '칼레이치'라고 부르는 성의 안쪽에 자리한다. 칼레이치의 오래된 집과 여관은 대부분 복원해 호텔이나 펜션, 레스토랑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칼레이치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안탈리아의 출입문으로 만들어졌다는 '하드ريان 문(Hadrian's Gate)'이다. 하드ريان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 왕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시민들이 세운 이 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면 지중해로 나가는 배들이 모여 있는 작은 항구를 만날 수 있다.

고대 도시 페르게의 숨결을 느끼다 로마제국 시대에 번성했던 팜필리아의 도시 페르게(Perge)는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 사람들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다. 고대 도시 페르게로 향하는 길에는 거대한 게이트가 하나 있는데 이 주변에는 로마시





AD 2세기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를 위해 건립된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대에 만들어진 분수대와 파수대 일부가 유적으로 남아 있다. 고대 도시의 주요 도로와, 로마 목욕탕, 기념 분수, 아고라(Agora)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페르게는 도시의 옛 영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아스펜도스의 고대 원형극장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지다 안탈리아에서 동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고대 도시 아스펜도스(Aspendos)는 도시의 윗부분에 위치한 아크로폴리스(Acropolis)와 아랫부분의 로어 시티(Lower City) 두 부분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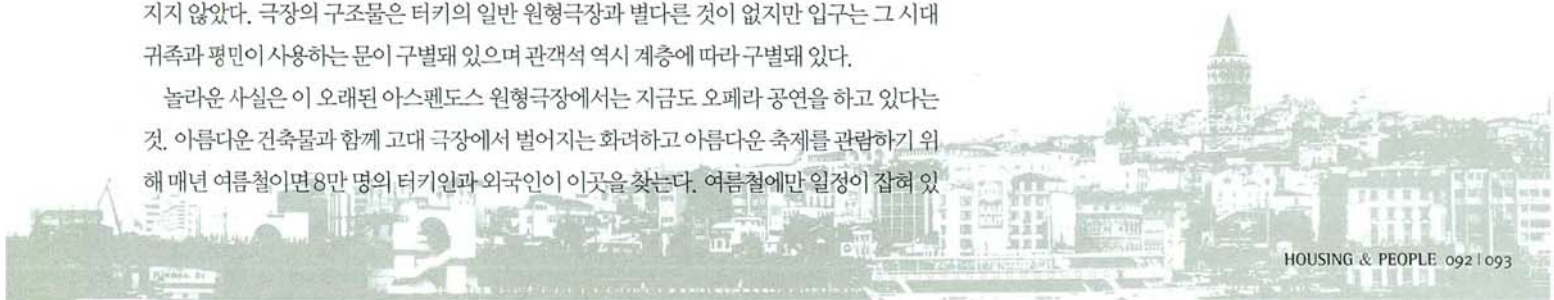
아고라, 불레테리온, 예배당, 기념 분수는 도시의 윗부분인 아크로폴리스에 있고, 극장, 스타디움, 로마 목욕탕과 수로(水路)는 아랫부분에 있다. 아스펜도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는 터키에 있는 수많은 원형극장 중에서 가장 잘 보존돼 있는 아스펜도스 원형극장.

AD 2세기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를 위해 건립된 이 극장은 아스펜도스 출신의 유명한 건축가인 제논(Xenon)에 의해 만들어졌다.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관중석에까지 미세한 소리가 전해질 정도로 완벽한 음향 효과에 대한 비밀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극장의 구조물은 터키의 일반 원형극장과 별다른 것이 없지만 입구는 그 시대 귀족과 평민이 사용하는 문이 구별돼 있으며 관중석 역시 계층에 따라 구별돼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오래된 아스펜도스 원형극장에서는 지금도 오페라 공연을 하고 있다는 것. 아름다운 건축물과 함께 고대 극장에서 벌어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매년 여름철이면 8만 명의 터키인과 외국인이 이곳을 찾는다. 여름철에만 일정이 잡혀 있



안탈리아의 고대 유적지



이stanbul의 신시가는 특급 호텔과 서구식 빌딩이 즐비하지만 구시가지에는 수많은 모스크와 성벽, 쓰러질 듯한 중세의 주택 등 과거의 모습이 고스란하다. 이슬람을 기본으로 하는 동양 문화와 유럽의 문화가 가미된 독특한 Istanbul의 분위기는 사람을 잡아끄는 묘한 매력이 있다.



블루 모스크 안쪽의 전경.



블루 모스크 내부에서 기도 드리는 이슬람교인.

다고 하니 고대 원형극장에서 직접 오페라를 보는 행운을 누리려면 시기를 잘 맞춰 방문해야 한다.

우리 일행은 아쉽게도 아스펜도스 극장에서 오페라를 볼 수는 없었지만 어떤 오페라보다 더 멋진 공연을 보는 기회를 얻었다. 안탈리아에서 취재를 도와준 현지 가이드 듀듀스가 극장 한가운데서 아리랑을 불러주었던 것. 고대 원형의 맨 꼭대기 계단에 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아리랑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은 떨림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가슴을 몽클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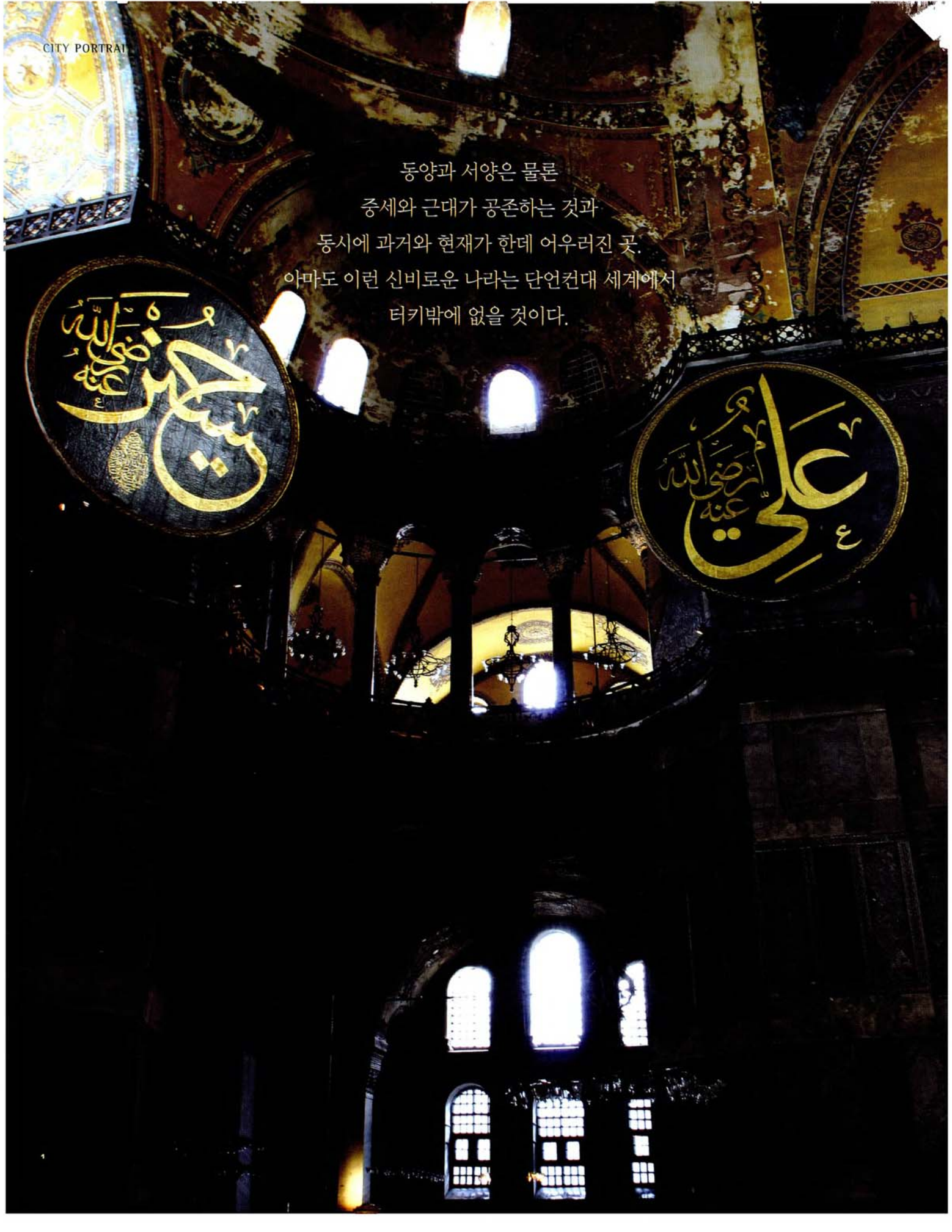
찬란한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유산을 꽃피운 도시의 저력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도로를 질서 없이 건너는 사람들과 아무 데나 앉아서 터키의 전통식 차와 빵 표면에 참깨를 잔뜩 문힌 깨빵 '시미트(Simit)' 를 먹는 사람들. 거리마다 쉽게 눈에 띄는 노천 카페에서 차이(Chai)를 마시며 Istanbul의 햇살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최고급 쇼핑 센터에서 정돈되지 않은 시장까지 선진국의 문화와 개발도상국의 무질서가 공존하는 독특한 곳이 바로 Istanbul이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겪었던 수순(手順)처럼 나 역시 때 묻지 않은 수순함과 시간의 향기와 포근함이 배어 있는 Istanbul에 매료되고 말았다.

Istanbul의 매력은 종교, 동양과 서양... 만나면 으르렁대기만 할 것 같은 가치관들이 사이 좋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찬란한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유산을 꽃피운 도시의 저력과 2000년이란 시공(時空)을 달리하는 건축물을 마주 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아시아 서해안 지대인 이온의 고대도시 에페소스(Ephesos)

동양과 서양은 물론
중세와 근대가 공존하는 것과
동시에 과거와 현재가 한데 어우러진 곳.
아마도 이런 신비로운 나라는 단언컨대 세계에서
터키밖에 없을 것이다.





이스탄불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 신비로운 도시를 며칠 만에 다 돌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여행객들이라면 이스탄불을 대표할 만한 중요한 볼거리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한다. 오스만 일족의 궁전이었던 톱카프 궁전과 초기 기독교의 상징인 아야소피아, 오묘한 매력이 느껴지는 이슬람 성전인 블루 모스크, 유명한 전통 시장 그랜드 바자르 등은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꼭 둘러봐야 할 곳들이다.

1 이스탄불에 있는 비잔틴 건축의 대표적 걸작인 성당, 아야소피아(Ayasofya). 2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그랜드 바자르. 3 터키 전통 의상을 입고 차이(Chai)를 파는 터키인들. 4 4000여 상점이 몰려 있는 그랜드 바자르. 가죽 카펫, 각종 금속 세공품 등 다양한 종류의 터키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스탄불을 관통하는 동·서양의 교차로, 보스포루스 터키 여행의 백미는 이스탄불이고, 이스탄불의 백미는 곧 보스포루스(Bosphorus) 해협이다. 그만큼 보스포루스 해협을 빼놓고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가진 매력을 운운할 수 없다는 이야기. 보스포루스 양측 해안에는 고대 유적지, 그림같이 아름다운 전통적인 터키 마을, 찻집, 별장 등이 모여 있다. 중세와 근대가 공존하는 것은 물론 과거와 현재가 한데 어우러진 이스탄불.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도 동·서양의 교차로라 불리는 보스포루스 해협 때문이 아닐까 싶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하는 묘한 매력을 지닌 보스포루스 해협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스탄불은 꼭 한번 여행할 만한 곳이다. ☺

